

# 미디어 아트 - GS 타워

뉴미디어와 조명의 융합, 새로운 아트로 거듭나다.

허윤수 <<주>알텍테크놀로지스 상무이사>

## 1 미디어 아트와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Media)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신문, 잡지 TV를 일컫는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현재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를 표현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생겨난 예술의 형태를 미디어 아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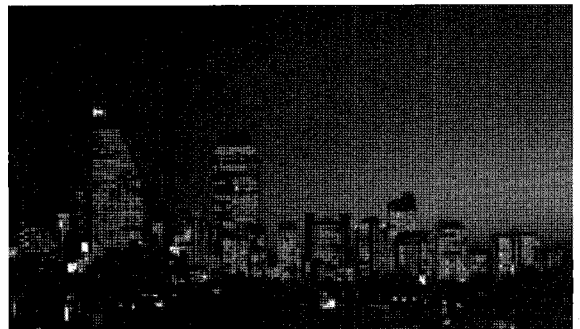
주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미디어 본연의 자세를 찾는 예술적 경향을 지칭한다. 즉, 미디어아트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으로서 책이나 잡지·신문·만화·포스터·음반·사진·영화·라디오·텔레비전·비디오·컴퓨터 등 대중매체의 파급효과가 큰 의사소통 수단의 형태를 빌려 제작된다.

독일의 문예비평가 발터 베냐민(1892~1940)은 20세기에 예술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갈래가 사진과 영화였다면, 오늘날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뉴미디어 기술과 예술이 만나 탄생시킨 미디어아트라고 표현했다. 처음에는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주로 사용하여 미디어 자체만을 이용한 예술의 형태를 지향했

으나,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현과 융합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컴퓨터와 모바일 등의 디지털 매체와 기술의 컨버전스로 분야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은 건축의 표현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건축물에서 파사드란 건물 전체의 인상을 단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이나 브랜드의 이미지제고 등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으로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메인사진)

미디어 파사드는 조명디자인 분야의 표현수단이라는 범주에서 출발하여, 차세대 광원으로 불리고 있는 LED의 개발과 함께 큰 이목을 집중시키며 건축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 2. LED 기술과 예술의 융합 미디어 파사드

GS타워는 2005년 건축물의 외관을 새롭게 리노베이션하면서, 미래 도시형 인텔리전트 건축을 지향하며 주변환경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LED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먼거리에서도 조망가능한 도심 속 아름다운 경관 연출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GS 타워의 파사드에 반영되는 영상은 유명 미디어 아트 작가의 작품으로 역동적이고 밝은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영상의 속도는 느리게 변환하도록 프로그램하고, 매시 정각마다 숫자로 시각을 표현하도록 하여, 바쁜 일상을 사는 도시인들이 GS타워를 바라볼 때 마다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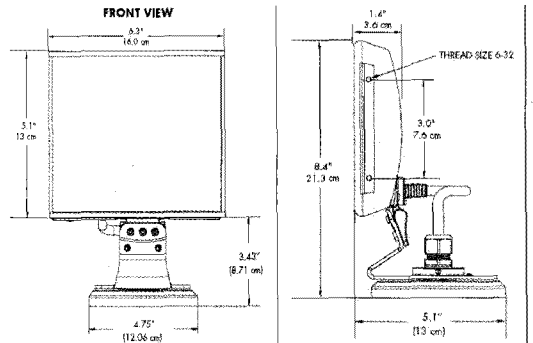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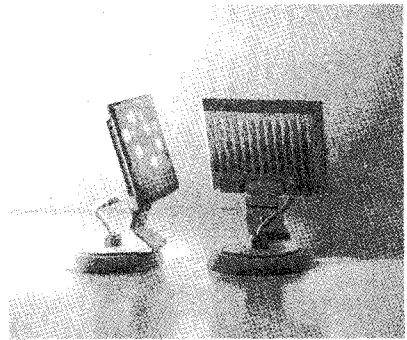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인화(人和)'의 GS그룹 기본이념을 컨셉으로 도시인이 미래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을 비롯하여, 바람개비, Flower, 민들레 홀씨 등을 이미지화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기반으로 에너지, 건설, 유통중심의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적 사회적 이념을 담아 내고 있다.

GS타워의 동측 한 면을 제외한 건물의 3면(북, 서, 남측)에 약 2,000개의 LED 모듈을 1,500×2,0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건축물의 27층에서 38층까지의 12개 층(약 40[m] 높이) 전체가 미디어화 될 수 있는 파사드를 구성하였다. 내부로부터의 시야를 확보하여 오피스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로 수평 간격을 약 1,500

[mm]로 두었다.

이 초대형 LED 캔버스 위에 사용된 Color Blast 6 모델은 LED RGB투광타입 램프로 중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색상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6,700,000의 다양한 컬러연출 및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다. 이 대규모의 LED 캔버스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DMX라는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었다.

1층의 방제실로부터 최상층 부위의 약 12개 층에 달하는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층마다 LED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중간층인 17층에 Sub-Controller를 설치하여 DMX 방식과 Ethernet 방식을 연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사용된 제품)



(시공된 모습/각각의 조명기구에 모두 하우징을 제작하여 씌우는 방법으로 빌딩안으로 빛의 유입을 차단)

서울의 중심인 남산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GS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메시지 전달과 정보를 제공하며 브랜드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으로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갖는 특별한 종류의 디자인 방법으로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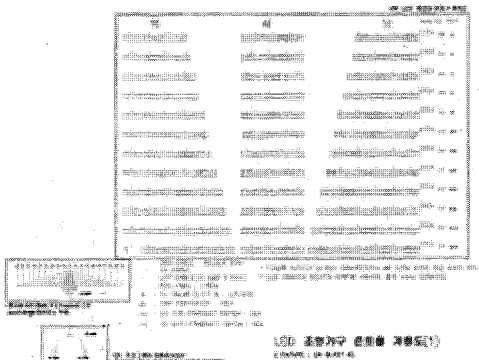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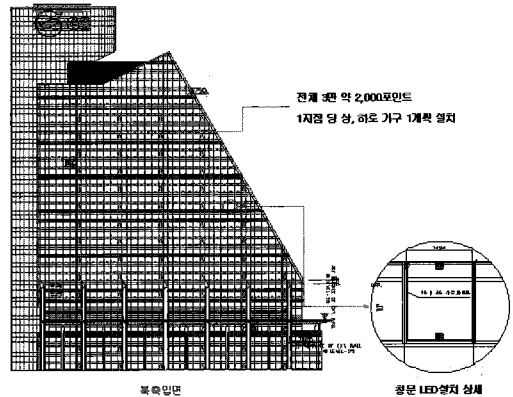
LED의 주기능이었던 Color change뿐만 아니라, 국내최초로 경관조명에 미디어 아티스트의 영상을 투영하여 조명과 예술을 첨단광학 기술과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 사례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 조명 계획이 함께 기획 된 것이 아닌 완공 된 건축물 위에 새롭게 설치 하게 된 이유로 기구의 노출과 빛의 내부 유입 등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빌딩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었다. LED의 Color change로 인한 빛이 업무중인 오피스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사무실 유리 벽과 LED 조명기구를 직각으로 설치하고 기구 하나하나에 모두 하우징을 제작해 씌우는 방법으로 내부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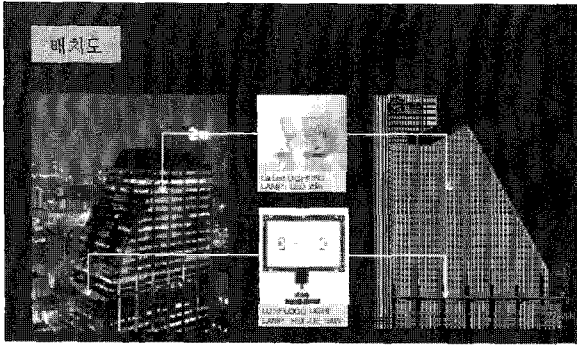
과거의 경관 조명은 '밝히고 비추는 기능'으로서 역할이 대부분이었지만 현대에는 건축과 조명이 미디어

와 결합하며 건축 파사드에서 진화하여 물리적인 건축물과 가상의 미디어 아트 영상과 함께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특히, LED는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고 기존의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 광원이라 불리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미디어간 융합은 분야의 경계를 무너뜨려 다양성과 독창성(Creativity)이 강조되어 LED뿐만 아니라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빛'으로 구현되는 어떤 것도 조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대중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로 발전이 기대되며 영상투영 등 시각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각, 촉각 등을 통한 다변적인 경험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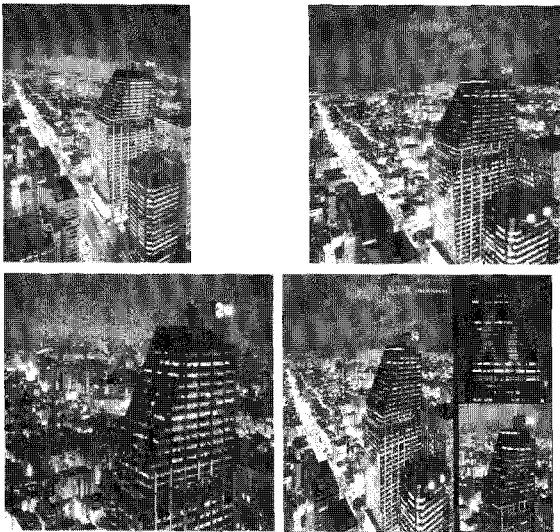
◇ 저 자 소개 ◇



허윤수(許允秀)

1973년 12월 15일생. 독일 슈트트가르트 종합예술대학 졸업. 현재 알텍테크놀로지스 상무이사. '2008 신성장 에너지 동력 사업/전략 기술분과 디자인 위원.

영상소개 컷



27층에서 38층에 걸친 대형 LED 미디어 파사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바람개비, Flower, 민들레 흩씨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컨셉으로 기업의 문화적 사회적 이념을 담아내고 있는 미디어 아트 영상